내일 개통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 구간 달려보니

뻥~ 뚫린 도로 1시간 단축

터널 33곳·교량 109곳 자연훼손·경사 최소화

전남의 남부지역을 동서로 잇는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 구간이 착공 10년만인 27일 새벽 0시를 기해 조기 개통한다. 이 도로는 애초 연말 개통예정이었으나 다음달 12일 여수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시기를 앞당겼다.

광주일보 취재진은 지난 23일 오후 한국도로공사 목포~광양건설사업단의 안내로 서영암에서 장흥 인근까지 약 30㎞ 구간을 직접 달려봤다.

서영암 나들목을 거쳐 고속도로로 진입하자 왕복 4차선 도로가 시원하게 펼쳐졌다. 전체 106.8㎞ 구간에 서영암 나들목을 비롯해 학산·강진무위사·장흥·보성·벌교·순천만 등 모두 7개의 나들목이 설치돼 있다. 고흥 나들목은 오는 12월 말 추가 개통될 예정이다.

서서히 속도를 올리며 도로를 질주하자 봄볕 아래 짙푸른 신록을 자랑하는 녹색도시 전남의 그림 같은 산야가 펼쳐졌다. 산과 평야, 강 그리고 옹기종기 모인 시골 마을의 집들이 파노라마를 연출했다.

도로 곳곳에는 개통을 앞두고 조경용 나무와 꽃, 중앙분리대, 방음벽 등 기본 시설을 마무리 점검하는 인력들로 분주했다.

15㎞쯤 지나자 영암휴게소가 눈에 들어왔다. 이 휴게소는 향후 교통량에 따라 오는 2016년께 문을 열 예정이며, 당분간 운전자들은 중간 지점에 있는 보성휴게소를 찾아야한다.

학산 나들목을 지나 15분 정도 더 달리자 강진 1터널로 들어섰다. 모두 3개로 이뤄진 강진터널 입구에는 강진의 상징인 도자기가 그려져 있었다. 터널 내부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조명 작업에 한창이었다.

쭉 뻗은 도로를 계속 달리자 400m 길이의 교량인 평기교가 장관을 연출했다. 이 도로는 106.8㎞ 구간 가운데 33곳의 터널(26.3㎞)과 109곳의 교량(17.5㎞)이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전 개통된 고속도로가 대부분 30~35% 사이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늘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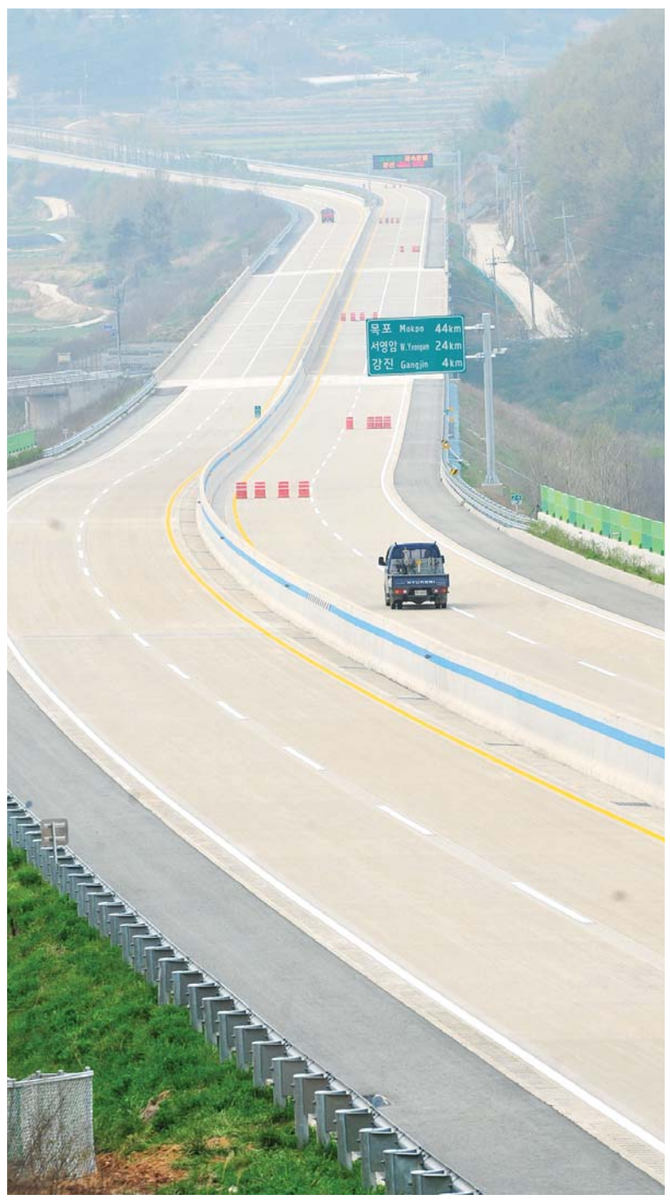
이는 친환경적이고 기능성을 높이는데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도로 건설과정에서 산비탈을 파헤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산 중턱에 교량을 세우고, 산을 깎더라도 끊지 않고 터널을 만들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한 것이다. 또 운전자들의 편리를 위해 교량을 세워 도로의 경사를 최소화했다. 때문에 자연스레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었다.

평기교를 지나 평기터널까지 달렸다가 최종 안전 점검을 하는 터라 남은 70여㎞ 구간을 다 달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며 차를 돌려 강진 무위사 나들목을 돌아 광주로 향했다.

지난 2012년 12월 첫 삽을 뜬 이 도로는 총사업비 2조2646억원에 연간 40만명의 인력과 장비 10만대가 투입됐다. 영암에서 순천까지 주행거리는 국도를 이용할 때와 비교하면 최대 40km 단축되며, 주행 시간은 약 1시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목포권과 광양만권을 직접 연결하는 이 도로가 여수엑스포와 순천정원박람회 등의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를 이끌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개발과 남해안 관광벨트의 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6일 오후 4시30분 남순천 영업소 광장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 지역 국회의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열 계획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 구간의 강진1터널 인근. 오산터널 방면으로 쭉 뻗은 왕복 4차선 도로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강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최시중 조사…박영준 집 압수수색

檢, 구속영장 검토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이 사업의 시행사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25일 오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박영준(6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나온 최 전 위원장은 기자들이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묻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짧게 답하고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언론노조 조합원 5~6명이 '언론장악 몸통 최시중 구속, 낙하산 퇴출'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기습시위를 하고 최 전 위원장의 검찰 출석을 취재하려는 기자 수십명이 대검 청사 입구에 몰려 한데 뒤엉키면서 소란이 빚어졌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을 조사한뒤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시티 전 대표 이모(55)씨는 지난 2007~2008년 최 전 위원장에게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이자 최 전 위원장의 중학교 후배인 브로커 이모(61·구속)씨에게 11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브로커 이씨가 최 전 위원장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가운데 5~6억원 가량이 최 전 위원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고 실제로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전 위원장을 상대로 돈의 액수와 사용처,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특히 최 전 위원장이 대선 당시 여론조사 등 정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돈을 썼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수사가 대선 자금 수사로 확대될지 관심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파이시티 인허가에 관한 로비와 금품수수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브로커 이씨가 박영준(6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갔다는 파이시티 전 대표 이씨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다 밝히면 재미 없지, 안 그래?!

'빨리'보다 '잘' 준비

김종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간담회

김종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오는 2104년 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되면 광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산업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25일 광주 동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당 완공을 즈음해 광주에 CT연구원이 들어서고, 나주에는 문화콘텐츠진흥원이 들어서면 광주에 문화콘텐츠가 집적되는 것은 물론 문화를 산업화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구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문화를 산업화하려면 기술적인 기반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문제없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하지만 문화산업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없는 분야라는 점에서 10년, 20년, 50년 앞을 내다보아야 하며, '빨리'보다는 '잘' 준비해야 광주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또,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진행과정에서 광주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지역민에 대한 배려는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화전당이 광주에 있다고 해서 무작정 지역적 배려를 바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원 문제의 경우 UN(국제연합) 직원이 뉴욕 시민만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 문화전당에도 아시아 각국의 인력들이 직원으로 상당수 참가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역적인 한계를 탈피해 광주가 아시아 문화 허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어 "문화전당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월 한 차례씩 전당 건설 현장을 둘러보는 이벤트를 열고, 도청 앞 광장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며 "광주가 아시아 문화의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지역민과 소통하며 차분히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는 8월께 아시아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각 국가 문화부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지난 2004년 추진단의 초대 기획실장을 맡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기본 개념을 구상하는데 일조를 했던 것을 되돌아보면, 광주와의 만남은 운명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 30년간의 공직생활을 경험 삼아, 문화에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행정가이자 조정자로서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제24회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권문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일 시 : 2012년 4월 29일(일) 오전 10시~ 오후 4시
- 장 소 : 광주첨단체육공원(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3번지)
- 연락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273-77(유일 연삭기內)
- 전 화 : 062-953-0133 FAX. 062-951-4551
  권충화 회장 010-3601-1210 · 권시현 회장 010-9883-6612

안동권씨 광주 종친회 회장 권 충 화
안동권씨 광주 청·장년회 회장 권 시 현